

소비 줄고 생산·투자 꺾여...올해 2번째 '트리플 감소'

소비 5개월째 감소,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 고물가·중 코로나 봉쇄 조치 등 국내 경기 악영향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꺾이면서 지난 4월 이후 올해 들어 2번째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최근 물가 상승에 따라 소비가 5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는데 이는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광공업 생산이 조정을 받으면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고, 이 영향으로 전체 산업 생산이 위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주요 도시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가 잇달아 시행되면서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전월보다 0.3% 쪼그라들었다.

지난 3월(-0.7%)부터 4월(-0.3%), 5월(-0.1%), 6월(-1.0%)까지 5개월째 감소세다. 가전제품,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0.8%)와 화장품, 음식료품, 서적·문구 등 비내구재(-1.1%) 판매가 줄어든 탓이다. 반면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 판매(1.9%)는 호조세를 보였다.

어윤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 화장품과 음식료품, 가전제품 판매가 많이 감소했다"며 "화장품의 경우 중국 봉쇄 조치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면세점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방역 조치 해제로 가정 내 외식이 증가하면서 음식료품 소비가 감소했다"며 "가전제품은 신규 상품이 줄었고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된 측면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계청은 소매판매액지수 감소세를 전체 소비 침체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어 심의관은 "여기서 소매판매는 재화 소비만 한정해 조사하는 것"이라며 "숙박·음식점이나 예술·스포츠 등 대표 서비스 업종을 비롯한 소비 전체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전산업 생산(농림어업 제외)도 전월보다 0.1% 감소하면서 3개월 만에 꺾였다.

전산업 생산은 올해 1월(-0.3%), 2월(-0.3%)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가 3월(1.6%)에는 석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바 있다. 이어 4월(-0.9%)에는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고 5월(0.7%), 6월(0.8%) 들어 재차 반등했다.

광공업 생산은 1.3% 감소하면서 마찬가지로 3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다.

자동차(1.1%) 등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반도체(-3.4%), 기계장비(-3.4%) 등이 부진했다. 특히 플래시메모리, DRAM 등 메모리반도체와 반도체조립장비, 웨이퍼가공장비 등 반도체 장비 생산이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도 1.5% 줄었다. 생산 능력 대비 실적을 뜻하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5.2%로 전월보다 1.2%포인트(p) 내렸다.

제조업 출하는 자동차(10.7%), 석유정제(10.5%), 전기장비(7.9%) 등에서 증가했으나, 반도체(-26.1%), 통신·방송장비(-10.7%), 기타운송장비(-6.1%) 등은 약세를 보였다.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12.3%), 화학제품

(2.1%), 기계장비(1.7%) 등이 늘었고, 자동차(-6.2%), 석유정제(-3.8%), 금속가공(-3.6%) 등은 감소했다.

어 심의관은 "중국 봉쇄 조치 여파로 반도체 수요가 주춤했다"며 "스마트폰 등 전방산업 수요 둔화로 생산 출하가 감소하면서 재고가 쌓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3%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세부적으로 숙박·음식점(4.4%), 도소매(0.8%), 예술·스포츠·여가(7.3%), 운수·창고(0.8%), 보건·사회복지(0.3%), 협회·단체·개인(0.2%), 전문·과학·기술(0.1%) 등의 업종에서 선방했다.

설비투자는 3.2% 줄어 들면서 3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항공기 등 운송장비(-6.9%),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2.1%) 등의 투자가 줄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3%) 공사 실적이 늘었으나 토목(-13.4%) 공사 실적이 줄어 2.5% 감소했다. 건설 수주(경상)는 기계설치, 발전·통신 등 토목(-23.1%)에서 줄었지만 공장·창고 등 건축(26.1%)에서 늘어 11.7% 증가했다.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어 심의관은 "광공업 생산이 조정 받으면서 전체 생산이 감소 전환했고 소매판매 등 내수 지표들도 감소하면서 경기 개선 내지 회복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p 오르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p 감소하면서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어 심의관은 동행지수 상승세에 대해 "전체 생산이 감소했지만 전월에 역대 최고 수준이어서 조정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며 "회복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선행지수가 하락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당분간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어 심의관은 "금융지표들이 많이 부진했는데 글로벌 금융 긴축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산업활동동향 평가 자료를 통해 비슷한 경기 전망을 내놨다.

재정부는 "전반적 회복 흐름은 유지되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성장 둔화·금리 인상

등 대외 측면의 어려움이 지속되며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중심으로 경기 대응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추석 물가 및 민생 안정, 호우 피해 복구,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 주거 안정 등 기존 발표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핵심규제 완화, 투자 세제 지원 확대 등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노력을 지속하면서 수출·해외의 수주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합동 대응 체제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발생 시 적기 대응하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부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승호 기자

LG전자, 42형 벤더블 올레드 TV '플렉스(FLEX)' 최초 공개

시청 환경에 맞춰 화면을 자유롭게 구부렸다 펴는 벤더블 TV



LG전자가 원할 때마다 화면을 구부렸다 펼 수 있는 벤더블(Bendable) 게이밍 올레드 TV를 선보인다.

8월 31일 LG전자에 따르면 벤더블 게이밍 올레드 TV '플렉스(FLEX)'는 시청 환경에 맞춰 42형(화면 대각선 약 106센티미터) 화면을 자유롭게 구부렸다 펼 수 있는 가변형 TV다.

화면 뒤쪽에서 빛을 쏘는 백라이트가 필요한 LCD와는 달리 구부러지거나 휘는 것이 용이한 올레드 패널의 특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에 따르면 올해 40형대 올레드 TV 출하량은 전년 대비 50% 가까이 늘어난 142만 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기존 출시한 48·42형 올레드 에보에 게이밍 경험을 극대화하는 이번 신제품까지 중형급 TV에서도 프리미엄 화질을 원하는 수요를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이번 신제품은 LG전자 독자 기술을 적용해 패널을 최대 900R(반지름 900mm 원이 원 정도)까지 화면을 구부릴 수 있다. 또 범위 내에서 총 20단계로 화면이 휘어지는 정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일반 콘텐츠를 시청할 때는 평평한 화면으

로 화면 전체를 한 눈에 보거나, 몰입감이 중요한 게이밍 환경에서는 원하는 만큼 곡률을 조절해 커브드 화면으로 바뀌거나 활용할 수 있다.

게임을 즐기는 고객들의 시청 자세에 맞춰 화면 위치를 조절하는 인체공학 설계도 탑재했다. 신제품은 화면을 위아래로 최대 15°까지 기울이는 틸트(Tilt)와 최대 14센티미터 내 화면 높낮이 조절을 지원한다.

LG전자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게임을 하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했다. 신제품은 게이밍 특화 UI·UX나 콘솔, PC 및 주변 기기와의 연결 편의성 등 다양한 최적화 기능을 제공한다.

게이밍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즐기는 게임의 특성에 맞춰 최적의 화질과 음향을 설정할 수 있다.

FPS(First-person shooter, 1인칭 슈팅), 스포츠 등 게임 장르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설정을 손쉽게 불러오는 프리셋(Preset) 기능을 지원한다. 화면 크기를 기본 42형 외에 32형, 27형 등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

내장 마이크를 탑재해 별도 헤드셋 없이도 함께 플레이하는 게이머들과 대화할 수 있다.

에코캔슬링을 적용한 채팅 기능을 지원해 게임 사운드와 사용자 목소리를 구분해 상대방에게 목소리를 또렷하게 전달한다.

USB 스위칭 허브 기능을 탑재, TV를 PC와 연결해 모니터처럼 사용하기 편리하다. USB로 연결되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TV와 PC에서 번갈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플렉스는 올 초 출시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42형 올레드 에보(OLED evo) 기반 제품이다. 올레드 에보 전용 '5세대 인공지능 알고리즘 프로세서'와 '화질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특히 SAR(Super Anti-Reflection) 패널을 적용해 기존 동급 제품 대비 빛 반사와 화면 비침 현상도 크게 줄었다.

▲0.1ms 응답속도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라데온 프리싱크(Radeon FreeSync)와 같은 그래픽 호환기능 ▲영상·음향 전문기업 돌비(Dolby)의 게이밍 특화 영상처리기능 돌비비전 게이밍(Dolby Vision Gaming)을 4K(3840x2160) 해상도 120Hz 주 사용에서도 지원한다.

40와트(W) 출력의 전면지향 스피커를 탑재하고 임체음향기술 돌비에트모스(Dolby Atmos)도 지원한다.

LG전자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2에서 벤더블 게이밍 올레드 TV 플렉스를 첫 공개한다. 연내 글로벌 주요 시장에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LG전자는 이번 전시의 메인 테마 가운데 하나로 관람객들이 신제품을 자유롭게 체험하는 플렉스 아케이드(Flex Arcade)도 조성한다. 단순히 화면을 구부렸다 펴는 혁신 TV를 선보이는 것뿐 아니라 신제품이 제시하는 기존에 없던 경험과 가치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다.

LG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은 플렉스 20여 대와 48형 올레드 TV를 통해 과거 레트로 게임부터 최신 콘솔 게임, OTT, 영화 등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LG전자 HE사업본부 TV CX(Customer eXperience, 고객경험)담당 백선필 상무는 "오직 올레드만이 가능한 혁신 폼팩터와 압도적 화질을 기반으로 고객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 경험을 지속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술 기자

바디프랜드, 추석 맞이 프로모션 진행

'안마의자 할인', '2+1 증정' 등 다양한 혜택 제공



글로벌 웰스케어 그룹 바디프랜드가 추석을 맞아 '안마의자 할인', '2+1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최근 출시한 신제품 로봇형 안마의자 '팬텀 로보', 스테디셀러 '더(The) 시리즈(더파라오·더팬텀)'를 포함해 구매가 420만 원 이상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구매시 ▲정상이 기준 8% 할인 ▲추가 10만

원 할인 ▲제휴 카드 할인 등 3번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렌탈시에는 최대 3단계로 마련된 선납금 할인 혜택에 제휴 카드 할인까지 적용돼 팬텀 로보 59개월 기준 최대 혜택이 142만 원에 이른다.

안마의자 2대 구매 시 1대를 더 증정하는 2+1 혜택도 마련했다. 리퍼 상품, 허그체어, 야미고를 제외한 전 제품을 대상으로 안마의자 2대를 구매 또는 렌탈하는 고객은 정상이 190만원의 허그체어 3.0을 추가로 증정해 2대의 가격으로 3대의 제품을 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은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및 전국 직영 전시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첫 명절이지만 지속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실 고객 분들을 위해 보다 실속 있고 합리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특별 할인과 풍성한 사은 혜택을 마련했다"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소중한 분들께 건강을 선물하는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선욱 기자

한국엠손, 가정용 라벨프린터 출시

한국엠손이 디자인 요소를 강화한 가정용 라벨프린터 LW-C610을 출시했다.

8월 31일 한국엠손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정리 정돈을 돕는 가정용 라벨프린터다.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엠손 라벨프린터 전용 앱(Epson Home & Craft Label)에 접속하면 다양한 라벨 디자인 표현이 가능하다.

라벨을 붙일 곳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틀을 선택한 후 라벨 안에 넣을 모양과 텍스트 등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기존 가정용 라벨프린터 대비 더욱 선명하고 또렷한 고화질 라벨 출력도 가능하다. 256 dots, 360 dpi의 해상도에 최대 12mm/sec의 출력 속도도 빠르게 인쇄할 수 있다.

출력 가능한 테이프 폭도 다양화했다. 테이프 폭은 최소 4mm에서 최대 24mm까지 총 6가지

로 사이즈로 출력할 수 있다.

식료품이나 화장품 등에 부착 가능한 소형부터 사무기기 등에 부착할 수 있는 대형까지 출력이 가능하다. 인쇄된 라벨을 자동으로 자르는 자동 커팅 기능도 탑재했다.

뉴스스